

이병주 소설에 나타난 시대 풍속

- 『여로의 끝』, 『운명의 덧』, 『서울은 천국』의 공간을
중심으로 -

손 혜 숙*

차 례

- | | |
|-----------------------|-------------------|
| 1. 이병주 소설과 풍속 | 4. 도시, 상품이 들어선 자리 |
| 2. 농촌, '신흥'으로 대체된 자리 | 5. 나오며 |
| 3. 이동수단, 아우토반과 벤츠의 욕망 |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이병주의 대중 소설 중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동 시대에 발표된 작품을 대상 텍스트로 삼아 소설 내의 '공간'과 공간을 잇는 사물들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당대의 풍속으로서의 삶의 양식과 생활 모습을 추적해 보았다. 작품 속의 공간은 크게 도시와 농촌, 작게는 기차, 고속도로, 고소버스, 자동차 등의 이동수단으로 나타난다. 이 공간들은 모두 사회적 공간으로, 다양하고 중층적이며 상호침투적인 속성을 갖는다.

먼저, 새마을 운동을 통해 시작된 농촌주택개량사업이 공간을 분리시켜

* 한남대학교 교수

연대를 불가능하게 했음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농촌에 유입된 물신화와 그 폐해, 인간성 상실과 빈부격차 등 자본, 계급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농촌’과 ‘도시’ 공간을 잇는 기차, 고속버스, 고속도로, 자동차 등도 정치·사회·경제의 중층적인 영향관계에 의해 생산된 공간으로 부, 지위, 차이화 등을 비롯하여 시대적 상황과 문제를 담지하고 있었다. ‘기차’는 새로운 사회적 생산물로 인해 시대를 표상하는 사물의 의미를 잃고 배경으로 전경화 되었다. ‘기차’를 대체한 자리에 들어선 고속버스와 고속도로 건설은 영농의 영세화와 이촌 현상을 초래하고, 부락을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켰다. ‘자동차’는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상징 기호임과 동시에 타자와의 차이화를 담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도시공간을 통해 주거 공간에서 인간 까지 상품으로 변모하는 양상,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당대의 생활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아파트는 도시개발정책이 은폐하고 있었던 공간의 차등화와 빈부의 불평등을 드러내고, 거주지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여기는 인식 논리를 비롯해 부동산 업자나 자본가의 투기가 성행하는 당대의 삶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었다. 아울러 자본주의 논리가 대지를 장악하고 부동산을 동산화 하는 과정 속에서 성행했던 직업들(사채업, 일수, 종합상사, 유흥업 등)은 당대의 사회·구조적 모순과 삶의 방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결국, 농촌, 도시, 농촌과 도시 공간을 잇는 다양한 이동수단은 자본주의 사회의 병리적 징후들을 드러내는 매개로, 당대의 삶의 모습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심급에는 본질이 망각된 채 모든 대상을 교환 가치로 여기는 시대 인식, 즉 자본주의 논리가 내재되어 있음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주제어 : 이병주, 여로의 끝, 운명의 덧, 서울은 천국, 풍속, 공간, 자본주

의, 교환가치

1. 이병주 소설과 풍속

이병주는 주로 역사와 시대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방식의 글쓰기를 해온 작가이다. 신문사 주필로 근무하면서 대설, 중설 등의 언론적인 글을 쓰다 필화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한 이후 그는 소설 쓰기로 글쓰기의 방향을 선회한다. 글의 장르가 변하긴 하였지만, 언론인으로서의 글쓰기나 문학인으로서의 소설 쓰기나 그 소재적인 측면에선 ‘역사와 시대’에 맞닿아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의 소설은 역사적 사건에 천착한 소설과 일상적인 삶이나 시대 풍속을 그리고 있는 대중적인 성향의 소설로 양분된다. 역사적 사건에 관한 소설은 주로 동시대가 아닌 한 시대 전, 즉 과거의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동시대의 문제는 ‘대중성’이라는 필터를 통해 드러낸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특히 대중 소설적 성향을 띠고 있는 소설들 때문에 그의 소설들은 문단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대중 소설이라 폄하되고 있는 그의 소설들에는 시대의 사유와 분위기, 그 시대를 살았던 주체들의 다양한 욕망의 스펙트럼이 투영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을 그는 다양한 삶의 방식과 생활세계를 나타내는 풍속을 통해 드러낸다. 따라서 풍속과 연관된 일상적 삶은 그의 소설의 소재이면서 동시에 소설의 구조와 의식을 결정하며 작가의 서사적 행위를 발생시킨 사회적 맥락이나 당대의 세태를 재현한다.¹⁾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문학 연구의 방법론으로서의 풍속과 당대의 풍속을 통해 시대를 포착하고 있는 이병주의 대중소설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양한 인간들의 삶의

1) 우한용, 「풍속과 소설연구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현대소설과 풍속』(한국현대소설학회 발제문), 2005, 29쪽.

양식과 생활세계를 그려내고 있는 이병주의 대중소설은 한 시대를 포착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사회장에 속해 있는 개인의 인식, 판단, 행위가 구조화된 것이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구조화 한²⁾ 일상적이고 관습적으로 축적된 문화로서의 풍속이 이러한 이병주의 소설을 분석하는 접근방식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고유의 생활 관습이나 새롭게 형성된 삶의 양식을 아울러 풍속이라 한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화나 삶의 양식, 더 나아가 시대적 이데올로기를 담지하고 있는 풍속은 풍속이라는 함의가 갖는 전방위적인 특질로 인해 문학 연구의 방법론으로 까지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다. 문학이 인간의 삶과 시대를 투영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한 시대의 현실과 그에 따른 사회의식의 변화, 당대를 살았던 주체의 정체성 등 한 시대의 다양한 층위들을 형성하고, 포착해 낼 수 있는 풍속은 문학 연구의 방법론으로 충분하다.

다만, 방법론으로서의 풍속의 범위 설정과 개념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김남천은 ‘생산관계의 양식에까지 현현되는 일종의 제도(예컨대 가정제도)와 그 제도 내에서 배양된 인간의 의식적인 제도 습득감(예컨대 가족적 감정, 가족적 윤리의식)까지를³⁾ 풍속이라 한다. 즉 풍속을 생활 관습과 생활양식을 아우르는 의미로 지칭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출발한다. 다만 그 범주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김동식⁴⁾은 풍속을 일상생활 또는 생활세계에 근접한 용어로 규정하면서 풍속을 문화와의 연계선상에서 바라본다. 그는 각각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풍속과 문화라는 용어가 일상생활, 개인적 경험 영역, 생활세계

2) 윤영옥, 「이기영 농민소설에 나타난 풍속의 재현과 문화재생산」, 『국어국문학』 157, 국어국문학회, 2011, 246쪽.

3) 김남천, 「일상의 진리와 모랄」(5), 『조선일보』, 1938. 4.22.

4) 김동식, 「풍속·문화·문학사」, 『민족문학사연구』19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01.

등과 같은 개념과 중첩되어 사용된다고 본다. 또한 문학연구의 주제로서 문화와 풍속은 일상생활의 현상적인 모습에 대한 소박한 재현을 넘어서, 일상생활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조건들과 제도들에 대한 문화적 해석을 포괄하며, 문화적 취향, 심성, 감수성, 아비투스 등과 같은 사회적 태도들에 대한 원천과 근거들이 풍속-문화적 문학연구의 일차적 대상이 된다⁵⁾고 본다. 이에 입각하여 김동식은 근대성의 경험적 영역 또는 미시적 차원에 대한 고고학적 탐색, 근대적 이념과 주체의 경험을 매개하고 분절하는 문화적 표상들에 대한 연구, 하위문화 양식과 대중문화에 대한 연구, 문학제도와 관련된 연구 등 풍속사의 영역에 대한 세부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권명아⁶⁾는 풍속이라는 범주를 사용한 연구들이 풍속을 주로 새롭게 형성된 삶의 패턴을 의미하는, 즉 ‘근대적 문화’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풍속에는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 그리고 성적인 것과 관련된 시대의 이념이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있음을 피력한다. 그리고 “오래된 관습, 새로운 문화(유행), 성적인 것과 관련된 행위 및 문화”라는 상이한 층위가 중첩되어 있는 것을 풍속이라 명명한다.

차혜영⁷⁾은 풍속사에 대한 초기 김동식의 총론에 동의한 후, ‘풍속-문화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문학 연구의 방법론으로서의 풍속사적 연구의 흐름을 짚어 본다. 이 연구에서 차혜영은 풍속사에 대한 초기의 총론에서는 풍속사의 개념이 비교적 중립적으로 규정되었지만, 이후 풍속사 연구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영역이 추가되기도 하고 전문화되는 경향을 거치면서 이제 ‘풍속-문화론’으로만 묶어내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풍속과 문화를 같은 개념으로, 일상의 영역을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지영⁸⁾은 차혜영과 같이 풍

5) 위의 글, 74쪽.

6) 권명아, 「풍속 통계와 일상에 대한 국가 관리」, 『민족문화사연구』33, 민족문화사학회, 2007, 373-374쪽.

7) 차혜영, 「지식의 최전선」, 『민족문화사연구』33, 민족문화사학회, 2007, 85쪽.

속과 문화를 묶어서 ‘풍속·문화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기서 문화는 사소하고 미시적인 삶의 영역으로부터 경험으로 육체화된 제도, 담론,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을 가리키며, 그런 점에서 담론과 제도로부터 습득하는 모든 것이 평범하고 관습화된 일들의 연속과 반복으로 육화하는 ‘일상’에 그대로 접합된다고 본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수용·절충하여 풍속의 의미를 ‘사회, 문화, 시대적 맥락을 재현하는 표상으로, 고유의 생활방식과 새롭게 형성된 삶의 방식’이라 규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근대성의 경험적 영역 또는 미시적 차원에 대한 고고학적인 탐색, 근대적 이념과 주체의 경험을 매개하고 분절하는 문화적 표상들, 하위문화 양식과 대중문화 등 우리의 경험과 인식의 지평에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온 문화적 표상에 대한 대상들을 모두 포괄⁸⁾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풍속은 한 시대의 모습과 삶의 양식을 포착할 수 있는 유용한 단서가 되며, 나아가 이것은 당대의 역사와도 연동한다. 식민지 시기, 해방, 한국전쟁, 4.19, 5.16 등의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은 그 시대의 생활, 문화, 삶의 양식 등을 생산해 내는 동시에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끼쳤다. 특히, 1970년대는 비동시적인 것들이 다양한 층위를 형성하며 공존하고 있던 시기이다. 그도 그럴 것이 식민지와 전쟁을 체험했던 세대들이 중장년층을 이루며 공존하였고, 그들을 통해 비동시적인 과거의 삶과 생활양식 또한 잔존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1970년대 하면 비어홀, 통기타, 블루진으로 대변되는 ‘청년문화’를 대표 문화로 언급한다. 물론 한 시대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중심에 있는 주체가 ‘청년’들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도시화, 산업화로 급변하는 사회와 독재 체제 안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저항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생성된 당대의 청년문화를 제외하고서는 1970년대를 완전히 논할 수는

8) 김지영, 「풍속·문화론적(문학)연구와 개념사의 접속, 일상개념 연구를 위한 試論」, 『大東文化研究』70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500쪽.

9) 김동식, 앞의 글, 100쪽.

없다. 하지만 고유의 생활 방식을 이어오고, 그들과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중장년층의 삶의 양식과 생활세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1970년대의 중장년층은 식민지 시기, 한국 전쟁 등 파란만장했던 역사의 질곡과 함께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되는 급격한 변화를 체험했던 세대로서, 그들의 삶과 문화에는 전근대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의 공서로 가치관의 혼란이 야기되고, 자본주의적 욕망과 물신이 지배하던 당대가 고스란히 투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가 1970년대에 발표된, 당대를 그리고 있는 이병주의 대중소설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시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소설에 투사하는 방식의 글쓰기를 해 온 이병주는 1970년대를 대표하는 청년문화 이외의 삶의 양식과 문화에 천착하여 당대의 문제를 소설로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병주의 대중 소설 중 197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동시대에 발표된 세 작품(『여로의 끝』, 『운명의 덧』, 『서울은 천국』)을 대상 텍스트로 삼아 소설 내의 ‘공간’과 공간을 잇는 사물들을 중심으로 당대의 풍속으로서의 삶의 양식과 생활 모습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들 작품 속 공간은 역사적 변화와 여러 사회 제반 현상이 연동하는 사회적 공간일 뿐 아니라 당대의 욕망과 감성 등이 담긴 일상생활의 공간이며, 나아가 문화적·정치적 의미가 구현되는 이데올로기적 공간이기도 하다. 이처럼 공간은 사회의 생산 관계 및 계급 관계를 표상하며 이때 사회적으로 생산된 공간은 사회, 제도, 사회적 관계 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제반 현상-풍속을 포착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2. 농촌, ‘신흥’으로 대체된 자리

『여로의 끝』¹⁰⁾, 『운명의 덧』¹¹⁾, 『서울은 천국』¹²⁾에 등장하는 주인공

들은 일정한 공간 패턴을 반복한다. 그들은 넓게는 국외와 국내, 좁게는 시골과 농촌을 왕래하며 각각 일정한 공간을 부유한다. 『운명의 덧』의 주인공 남상두는 23년 전 S읍에 신설된 고등학교 교사로 첫 부임해 ‘기차’를 타고 농촌으로 내려왔다. 그는 기차 안에서 한 노인을 만나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경계해야 하는 것 등 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현실적인 조언들을 듣는다. 이후 남상두는 20여 년 전을 회고할 때 기차라는 공간과 그 기차 안에서의 만남을 생각하며 노인의 조언을 새겨듣지 않았기에 자신의 과거를 잃을 만한 일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후회한다.

소설 내에서 기차는 그가 잠시나마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꿈을 꿀 수 있었던 공간이자 그의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시작점이 위치한 공간이다. 20여 년 전만 해도 당대를 대표하던 가장 빠른 육로 교통수단이었던 기차는 이제 그의 과거와 사라져버린 젊음이 담겨있는 농촌을 상기시키는 공간으로 변했다. 『여로의 끝』에서 역시 ‘기차’는 도시적 이미지가 아닌 과거, 농촌, 자연, 고향 등을 상징하는 사물로 읽힌다. 소설의 주인공 안현상도 고향을 찾을 때마다 기차를 타고 이동한다. 기차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고, 생각을 정리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생산된 공간으로 인해 자연 공간이 배경으로 밀려나 허구 혹은 부정적인 유도피아로¹³⁾ 변모했듯이 이제 기차

10) 이 소설은 1970년 5월부터 1971년 12월까지 새농민에 『망향』이란 제목으로 연재되었고, 이후 1978년 『망향』이란 제목 그대로 경미문화사에서, 1984년 창작예술사에서 『여로의 끝』이란 제목의 단행본으로 개제·출간되었다. 이 연구는 1984년 『여로의 끝』이란 제목으로 창작예술사에서 개제·출간된 작품을 대상 텍스트로 삼았음을 밝혀둔다.

11) 이 소설은 『별과 꽃과의 향연』이란 제목으로 1971년 1월에서 1979년 12월까지 영남일보에 총 294회 연재되었고, 이후 『풍설』이란 제목으로 1981년 문음사에서 상하로, 1992년 문예출판사에서 『운명의 덧』상하로 개제·출간되었다. 이 연구는 1992년 문예출판사에서 출간된 것을 대상 텍스트로 삼았음을 밝혀둔다.

12) 이 소설은 1979년 3월 『한국문학』에 수록되었으며, 1980년에 태창문화사에서 작품집으로 출간되었다. 이 연구는 태창문화사에서 출간된 작품집을 대상 텍스트로 삼았음을 밝혀둔다.

는 ‘고속도로’, ‘고속버스’라는 사회적 생산물로 인해 시대를 표상하는 사물의 의미를 잃고 삶의 배경으로 전경화 되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급속도로 진행되었던 당대의 개발정책도 한 몫 한다. 20여 년 만에 다시 찾은 s읍의 풍경은 이를 여실히 드러낸다.

옛날엔 고속버스라는 것이 없었다. (중략) 고속버스 속에서 나는 아득히 사라져간 20년이란 세월의 의미를 생각했다. 그 의미는 바로 고속버스에 있었고 고속버스가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에 있었다. 연도에 초가집이 보이지 않는 것도 그 의미의 하나일지 몰랐지만 그 대신 눈에 띄게 된 파랑, 노랑, 붉은 빛깔로 칠한 양철지붕을 결코 좋은 의미로 이해할 순 없었다.¹⁴⁾

고속도로를 벗어나고도 버스로 한 시간 가량을 달려야만 s읍에 도착하는데 그 길도 깨끗하게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었다. 자동차가 한 대 지나가기만 하면 몽몽한 먼지가 일어나 가로수 잎과 길가의 집들이 풀이 아니었던 옛날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중략) s읍의 변모도 나를 놀라게 했다. 서울의 변화에 이미 익숙해 있는 눈임에도 그것은 대단했다. 거의 반 이상을 차지했던 초가집이 전부 기와지붕, 양철지붕으로 변해 있었고, 20년 전에는 두세 채밖에 없었던 이층집이 무려 수십 채가 시야에 들어왔다. (중략) 버스 정류소에서 나는 사방으로 통해있는 아스팔트 도로와 시골티가 나긴 하나 제법 간판을 걸고 있는 상가를 둘러보았다. 포탄형(砲彈型) 방말을 철쇄로 엮어놓은 가드레일이 눈에 거슬렸지만 어린아이들이 한길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보호책으로서 필요한 것인지 몰랐다. (『운명의 덧』상, 12-13쪽)

‘옛날엔 없던 고속버스가 생겼다’는 것은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잇는 고속도로망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생활 영역이 확대¹⁵⁾된 속도와 유통성이 확보된 시대 상황을 의미하며 작가는 이러한 시대의 모습을 자연

13)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76쪽.

14) 이병주, 『운명의 덧』상, 문예출판사, 1992, 8쪽. (이후 작품명과 쪽수만 표기)

15) 강현두, 「현대 한국 사회와 대중문화」, 『한국의 대중문화』, 나남, 1987, 26-27쪽.

스레 텍스트 위로 미끄러트린다. 묘사나 심리 보다는 주로 대화 중심의 서사를 엮어내는 이병주의 글쓰기 양상을 고려해 본다면 이 소설에서 적지 않게 등장하는 공간 묘사는 주목을 요한다.

주지하다시피 남상두는 고속도로, 아스팔트, 포장된 길, 양철지붕 등으로 나타난 농촌의 새로운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과정이 생략된 채 결과만을 대면했을 때의 낯섦, 그와 동시에 밀려오는 자신의 인생에서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로였던 지난 20여년의 세월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소설의 전체 서사를 볼 때, 이것만으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남상두의 부정적 인식을 해석할 수만은 없다. 위 인용문을 포함하여 소설에서 빈번히 묘사되고 있는 농촌의 양철지붕이나 아스팔트 포장도로, 유리문, 시멘트 담 등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 모두 당대의 근대화 프로젝트의 기획물들이다. 당시 새마을 운동을 통해 시작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풍경과 주거환경을 전통적인 농촌의 모습과 단절시켰고, 유리문과 시멘트벽은 공간을 분리시켜 연대를 불가능하게 했다.

새마을 운동은 “사회 전체의 안정을 해칠 만큼 심각한 수위에 도달한 농촌 문제를 완화”했다는 평가와 “10월 유신과 영구정권에 필요한 대중 동원을 위해” 전개되었다는 양가적 평가를 함께 갖는다.¹⁶⁾ 전자의 평가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후자의 평가에 주목하여 새마을 운동의 배경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쌍용양회가 시멘트 생산 과잉으로 재고 처리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그 시멘트를 구입해 전국에 무료로 배포했고, 그 결과 많은 마을이 빨래터를 고치고 다리를 놓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이로 인해 새마을 운동은 처음엔 시멘트를 사용해 할 수 있는 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시멘트로 도로 내고 그 도로로 모래와 시멘트를 운반해 시멘트 기와를 만들었으며 1975년에는 전국의 모든 농가

16) 박진도, 「현대사 다시 쓴다. 이농과 도시화: 급격한 산업화...남부여대(男男女女) 무작정 서울로」, 『한국일보』, 1999. 8. 3, 14쪽.

들의 지붕이 기와나 슬레이트로 바뀌게 되었고, 이 지붕 개량으로 농촌의 모습이 달라졌다. 1970년대만 해도 전국의 250여만 농가들의 약 80%가 초가지붕이었으며,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으로 바꾸는 것이 새마을 사업인 양 생각할 정도로 지붕 개량은 순식간에 전국의 마을에서 전개되었다.¹⁷⁾

농촌의 변화는 비단 ‘지붕’에만 있지 않았다. 남상두가 과거를 추적하면서 이동하는 궤적마다 곳곳에 변화의 흔적이 담겨 있다. 유일하게 자신을 옹호해 주었던 윤학로의 집의 돌담은 블록담으로, 대문은 철문으로 바뀌는 등 현대식 양옥으로 변했다. 또, 목조로 되었던 초라한 경찰서 건물은 시멘트 콘크리트로 된 현대적 건물로, 과거 윤신애의 엄마가 경영했던 ‘달성옥’의 간판은 ‘삼우장’으로, 그 벽은 시멘트벽으로, 문간도 현대식으로 바뀌었다. 남상두는 이러한 공간의 변화를 눈여겨보며, “친한 친구라고 해서 달려갔으나 쌀쌀한 응대를 받았을 때의”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여기에는 20년이란 세월을 훌쩍 뛰어넘은 데에서 오는 괴리감과 동시에 당대를 바라보는 시선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변화된 농촌에 대한 남상두의 시선은 다음의 인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어딜 가도 눈에 띄이는 신흥(新興)이란 문자. 신흥여관, 신흥이발관, 신흥공작사, 신흥상점. 나는 생리적으로 「신흥」이란 문자를 싫어한다. 「신(新)」자도 달갑지 않고 「흥(興)」자도 역겨웁다. 「신」은 쑤셔놓은 새집처럼 부풀어 있는 여자의 퍼머넌트 머리를 연상케 하고 「흥」은 번들번들 개기름이 끼인 벼락부자의 얼굴을 연상케 한다. 그러니 아무런 사연이 없는 객지로 갔더라면 「신흥」이란 간판을 붙인 여관을 찾아들 마음은 거의 절대적으로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만큼 s읍을 찾은 내 마음이 삭막하다는 것이 된다. s읍에서의 나는 호오(好惡)의 감정을 따질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블록을 쌓아올려 시멘트로 발라 만든 2층의 구조부터가 「신흥」이란

17) 박진환, 『새마을운동: 한국 근대화의 원동력』, 김성진 편역, 『박정희 시대: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조선일보사, 1994, 217쪽.

이름에 묻어 있는 속기(俗氣)를 풍겨내고 있었다. 정면에 두 짝으로 된 암색의 유리문이 붙어 있었고, 그 유리에도 「신흥여관」이란 이름이 붉은 페인트로 써어 있었다. (『운명의 덧』상, 18-19쪽)

작품 어디를 보아도 남상두가 생리적으로 ‘신흥’이란 문자를 싫어할 만한 근거는 없다. 싫어함을 넘어서 역겹다고 표현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단서는 ‘여자의 퍼머넌트 머리’와 ‘벼락부자의 얼굴’, 「신흥」이란 이름에 묻어 있는 속기(俗氣)에 있다. 농촌에도 자본주의식 이치가 침투하여 모든 풍경들이 ‘물신화’ 되어가고, 이것은 다시 새로움을 추구하는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치적 영역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남상두에게 또한 당대를 바라보는 작가에게 역겨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선은 경제적, 계급적 문제로 실연한 안현상의 귀농에서도 포착된다. 애초에 “연애가 없는 현대”에서 실연하여 아무 생각 없이 고향에 내려갔던 안현상은 고향 친척들에게 냉대를 받기도 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친구를 만나 농촌 현실에 대해 조언을 듣기도 한다. 자신의 주거와 생계에 타격이 가해질 것을 염두 해 안현상을 냉대하는 친척들의 각박해진 인심, 농사를 짓겠다는 안현상에게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팔아 받은 은행에 넣어 이자를 챙기고, 나머지 받은 대도시 변두리에 땅을 사서 이윤을 챙기라고 말하는 친구의 충고에서 농촌에 까지 침투해 있는 자본주의 논리를 포착할 수 있다.

결국 너도 나도 잘 살아보자는 취지를 걸고 진행되었던 ‘새마을 운동’은 시골 사람들 모두를 잘 살게 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당대의 경제 개발 정책 역시 있는 자들의 ‘부’는 더욱 견고히 해주었고, 없는 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농촌’은 더 이상 인심이 후한 안식처로써의 공간이 아닌 것이다.

3. 이동수단, 아우토반과 벤츠의 욕망

당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남상두는 돌연 살인사건에 휘말려 투옥되었다가 20여 년 만에 출소한다. 부유한 집안 환경으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지만 그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출소하자마자 ‘고속버스’를 타고 s읍으로 귀환한다. 20여 년을 세상과 단절된 채 고립된 삶을 살았던 그에게 ‘고속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아득히 사라져간 20년이란 세월”을 상기시키며 시대의 변화와 상황을 인지하게 하는 상징물로 작용한다. 여기서 고속도로 개통과 고속버스는 당대의 수많은 변화와 문제들을 배태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생산된 공간’¹⁸⁾으로, ‘다양하고’, ‘중층적이고’, ‘상호 침투적’¹⁹⁾인 성향을 갖는다. “공간은 경제적으로 자본에 의해, 사회적으로는 계급에 의해, 정치적으로는 국가에 의해 지배되”²⁰⁾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당시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과 추진과정 그리고 이후의 사회적 변화 안에는 ‘자본’, ‘국가’, ‘계급’이 중층적으로 얽혀있다. 고속도로는 당시 박정희에 의해 계획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단 한푼의 예산 뒷받침이 없는 사전 공사로 초기 설계도 채 끝나기 전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설계와 공사가 병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선 결정은 물론 공정 계획까지도 박정희가 직접 지휘해²¹⁾ 이것을 두고 박 대통령의

18) 르페브르는 공간의 ‘생산’을 사물의 경제적 생산만이 아니라 사회, 지식 및 제도의 생산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한다. 즉, 공간의 ‘생산’은 물질적 생산과 사회적 시·공간을 포함하는 인간의 정신적 생산 및 사회적 관계의 생산 까지를 포함한다.(Henri Lefebvre,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역, 主流·一念, 1990, 66쪽.)

19) H. Lefebvre, La Production de l'espace, paris, Anthropos, 1974, p.36,104(노대명,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생산이론’에 대한 고찰」, 『공간과 사회』14호, 한국공간환경학회, 2000, 49쪽에서 재인용.)

20) H. Lefebvre, 위의 책, p.62 (노대명, 위의 글, 52쪽에서 재인용.)

21) 손정목, 「현대사 다시 쓴다. 경부고속도 개통: 64년 독 아우토반 주행 후 대통령 ‘대역사’ 결심」, 『한국일보』, 1999. 8.17, 14쪽.

‘원맨쇼’, ‘군사작전’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건설 시공은 현대건설이 전구간의 5분의 2를 시공했고, 나머지는 15개국 국내 건설업체와 육군 건설공병단 3개 대대가 맡았다고 한다. ‘선 개통 후 보완’이란 원칙 아래 서둘러 완공한 경부고속도로는 후에 1990년 말까지 1,527억. 즉 건설비의 4배 가까운 보수비용이 들었으며, 건설 중 77명의 사망자가 속출하기도 했다.²²⁾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건설은 땅값에 영향을 미쳐 영농의 영세화와 이촌 현상을 초래하고, 고속도로 건설 회사가 주변의 젊은 청년들을 고용함으로써 영농 의욕의 감퇴와 노동력 부족 현상을 초래했다. 나아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부락이 인위적으로 분리되어 공동체 의식에 금이 가고, 고속도로 건설업자나 노무자들의 영향으로 소비지향적인 태도와 영리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등의 이해 타산적 사고방식이 강화되었다.²³⁾ 경부고속도로(1970), 영동고속도로(1971), 호남고속도로(1973)의 개통으로 자동차 중심의 도로문화가 한국 사회의 주류적 관념으로 형성되면서, 자동차 중심의 도로는 주체와 공간을 분리시켜 거리 문화를 황폐화 시키는 요인으로 까지 작용했다.²⁴⁾

이처럼 ‘고속도로’라는 공간은 정치·경제·사회의 중층적인 영향관계 속에서 생산되었으며, 개발 경제 시대의 사회적 문제 및 모순을 비판적 시각으로 드러내는 상징 기호로 작용한다. 아울러 고속도로가 형성하고 있는 도시 공간은 ‘상품의 세계, 화폐의 힘과 정치적인 국가의 권력’을 포함하는 자본주의적 공간으로 대체된다.²⁵⁾ 이것은 당대의 문화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대표적인 경우로 서울-수원 고속도로가 처음 개통된 1968년 12월 12일 이후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프차’가 ‘자동차’로 대체되

22)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1970년대 편①』, 인물과 사상사, 2002, 70쪽.

23) 홍승직, 「고속도로와 사회변동」, 임희섭·박길성 공편, 『오늘의 한국사회』, 나남, 1993, 498, 503-504쪽.

24) 오창은, 「한국 도시소설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5, 87쪽.

25) Henri Lefebvre, 『공간의 생산』, 앞의 책, 108쪽.

기 시작한 현상을 지목할 수 있다. 이때부터 한국사회에는 자동차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자동차는 물질적 부와 남성들의 자존심, 계급 등을 상징하는 기호로 작용했다.

『여로의 끝』의 안현상은 자신의 연인을 태우고 간 ‘벤츠 300’의 충격으로 자신의 ‘사랑’을 의심하여 실연하고, 귀농을 결심하게 된다. 별다른 의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벤츠 300호의 십분의 일인 2백만 원이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안현상에게 사장의 ‘벤츠 300호’의 옆자리에 타고 유유히 사라져간 연인의 뒷모습은 충격이었다. 이후 안현상의 머릿속에는 “벤츠 300호. 그 값 2천만 원!”²⁶⁾이란 생각이 끊임없이 유영하며 연희의 얼굴을 보면서도 벤츠의 잔상을 지워버리지 못한다. 그리고 물질적 ‘부’를 획득한 이후 새로 만난 강양숙에게 똑같은 벤츠 300호를 선물로 받지만 이내 거절할 만큼 그에게 ‘벤츠 300’호는 커다란 상흔으로 자리 잡는다. 안현상의 말대로 ‘벤츠 300’호는 단순한 이동수단의 의미를 넘어서서 자신의 ‘청춘을 빼앗아간’ 원인이며, 나아가 절대적 지위, 부를 상징하는 기호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운명의 뒹』의 남상두가 ‘부’를 획득한 후 가장 먼저 소유하는 대상이며, 「서울은 천국」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들은 모두 자동차가 물신의 상징기호로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서울은 천국」의 민중환은 ‘벤츠 280’을 타고 다니며 ‘벤츠 280’의 덕으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머무르는 곳은 대부분 호텔, 골프장, 고급 요리집 등 자본주의적 공간들이다. 그리고 그 역시도 자동차로 사람을 평가하며, 심지어 자동차로 감정이 좌우되기도 한다. “벤츠 450만 보면 나라 단위(單位)로 사고(思考)를 확대하여 순간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돌연 애국자로”²⁷⁾ 변모할 만큼 민중환은 ‘벤츠 450’을 타고 다니는 사람을 경멸한다. 그의 논리에 의하면 당시 우리나라

26) 이병주, 『여로의 끝』, 창작예술사, 1984, 52쪽.(이후 작품명과 쪽수만 표기)

27) 이병주, 「서울은 천국」, 태창문화사, 1980, 41쪽. (이후 작품명과 쪽수만 표기)

라는 “아직 GNP 1천 불 내외이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기에 “벤츠 600은 물론이고 벤츠 450을 탈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백영택은 레코드 로이얼을 갖고 있으면서 해마다 그 차를 신형으로 바꾸었고, 민중환은 벤츠 280을 3년째 타고 있었는데 민중환은 백영택을 경박한 증거라고 하며 경멸하고, 백영택은 민중환을 인색함과 허영심의 동거(同居)가 벤츠 280으로 된 것이라며 경멸했다. 심상수는 자가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바로 그 사실로써 민과 백은 심을 경멸하고, 심은 꼭 자가용차를 타야 할 업무량(業務量)도 없으면서 자가용차를 가지고 있는 민과 백을 분수를 모르는 놈들이라고 경멸하고 있었다. (『서울은 천국』, 53쪽.)

위 인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은 천국』의 주요 인물들은 서로를 자동차로 평가한다. 함께 사채업에 종사하면서도 서로를 경멸했던 것은 이들이 철저히 필요와 이해관계로 형성된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매일을 붙어 다니고 함께 일을 하면서도 가족끼리의 교류는 전혀 갖지 않고, 서로를 경멸하면서도 자신들의 단점과 비행이 폭로될까봐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 이처럼 『여로의 끝』, 『운명의 덧』, 『서울은 천국』을 비롯해 이병주 소설에는 자본가의 상징기호로 ‘벤츠’, ‘볼보’ 등의 자동차가 빈번히 등장한다. 이와 같이 특정한 형태의 자동차나 특정 모델의 TV, 특정한 형태의 수영장을 갖춘 특정한 크기의 가옥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떠한 지위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사회적 지위를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물건은 사회적 상황과 함께 그 기호를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일뿐만 아니라 온갖 희망과 원망을 압축하고 있는 신화적 상징이자 제의적 상징을 대변한다. 이처럼 ‘자동차’가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는 이유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신화 형성적 경향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노력에 산업사회가 무의식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이다.²⁸⁾ 나아가 사용가치의 소비

를 포함하면서 행복, 안락함, 풍부함, 성공, 위세, 권위, 현대성 등의 소비도 포함하는 이들의 자동차 소비는 그들을 스스로 돋보이게 함과 동시에 사회적 지위와 위세를 나타내며, 그 배면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화를 내재하고 있다.²⁹⁾ 뿐만 아니라 항상 특권 있는 소수의 몫이며, 계급의 특권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의 부와 그 사회구조를 결정짓는 역할도 한다.³⁰⁾ 당시의 성장사회는 자본만 있으면 누구나 최신 유행상품을 소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간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욕망은 남들과 똑같은 상품으로는 스스로 만족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구별짓기로서의 소비를 추구하게 했다. 이처럼 자동차로 상징되는 사치형, 과시형 소비는 국민을 중심으로 하여 동질화를 추구했던 1970년대 국가 정책의 표상을 전복시키며 그 안에 은폐되어 있던 ‘차별화 원리’를 수면위로 드러낸다.

4. 도시, 상품이 들어선 자리

당대의 근대화 프로젝트의 기획물로서 ‘농촌’과 ‘도시’를 가로지르며 자본주의의 모순을 표상하고 있는 사물이 ‘고속도로’라면, ‘공항’은 ‘고속도로’ 표상보다 당대의 병리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낸다. 해외 출입이 일상화되지 못했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공항을 빈번히 드나들고, 공항을 드나들 때마다 많은 출영객이나 환송객들이 동원되며 자동차를 타고 공항을 확보한다는 것은 일정한 ‘직위’나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여로의 끝』에서 사장 아들의 귀국에 ‘공항’으로 동원되었던 안현상이 “황제의 아들은 황제, 대재벌의 아들은 대재벌, 그게 사회구 인생

28) Umberto Eco, 『대중문화연구2: 대중의 영웅』, 조형준 역, 새물결, 2005, 58-59쪽.

29) Jean Baudrillard, 『소비의 사회』, 이상울 역, 문예출판사, 1991, 314-315쪽.

30) 위의 책, 59쪽.

이란 말이지.”라며 씩씩해 하는 모습에서 ‘공항’이 함의하고 있는 물질 중심의 계급 사회의 단면이 드러난다. 안현상은 “출생과 더불어 신분이 결정된다는 범례를 매일처럼 눈앞에 보고 젊은 사람이 회의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감수성이 둔하거나 미리 노예근성에 젖어 있거나 한 사람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회의감은 쉽게 극복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상품을 만들기 위한 상품, 상품을 팔기 위한 상품, 상품을 팔아 모든 돈을 관리하는 상품, 그런저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되면 폐품이 되어 버리는 존재, 이것을 과연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까” 자문하면서도 그들은 이내 자신들을 “넥타이를 맨 노예”라고 인정해 버린다. 상품으로 전락한 인생, 넥타이를 맨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다음과 같은 도시의 풍경과 무관하지 않다.

초여름 밤의 서울의 공기는 메스꺼웠다. 거리의 네온사인인 잡스럽기 만 했다. 가도에 봄비는 자동차의 무리가 탐욕스러운 인간의 욕심을 닮았다. 그 크락손 소리가 인간의 인간다운 말을 잃어버린 돼지의 신음소리와도 같았다. (『여로의 끝』, 55쪽.)

시간이 될 때까지 근처를 돌아다녀보기로 했다. 참말 갈 곳이 없었다. 걸어 다니며 마음을 풀 수 있는 시가(市街)라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것은 대구만의 사례가 아니다. 서울엔 고궁이라는 게 있어 산책할 몇 군데가 있지만 그걸 빼놓으면 살풍경일밖에 없다. 대구엔 고궁도 없다. 요란스런 간판을 붙여놓은 상점들이 있을 뿐이다. 아이 쇼핑이란 말이 있지만 살 의사도 없는 예술품도 아닌 상품을 아이 쇼핑한다는 것도 골이 빈 인간이 할 일이다. 어디로 가나 먼지와 소음이 일고 있는 거리, 조금 멈춰 서서 구경을 했으면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그러면서 인구 백만을 넘는 도시라고 하면 이걸 너무나 고갈된 정서가 아닌가. (『운명의 뒷』상, 256-257쪽.)

위인용은 당대의 ‘도시’적 풍경과 도시적 풍경이 내뿜고 있는 당대의 세태를 투사하고 있다. 개발을 목적으로 낯이 변화하고 있지만, 그 개

발의 과정에서 ‘물신’이 절대화되고, 그로 인해 다양한 기형적 현상과 직업, 풍경들이 생성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전염성이 강한 신종 바이러스처럼 쉽게 확산되어 사람들의 의식 구조 속으로 빠르게 침투한다. 안현상은 병리적인 세계에서 ‘자본’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자괴감 속에서도 ‘정을 나누며 인간 구실을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고 자위하며 현실을 견뎌내기도 한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낭만적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물신’ 사회에서 ‘낭만적 사랑’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듯이 ‘벤츠 300’으로 인해 둘의 사랑은 쉽게 끝나고, 안현상도 자본주의적 순리 안으로 되돌아서게 된다. ‘낭만적 사랑’이 존재하던, 그래서 정을 나누며 인간적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자 생각했던 때 안현상이 배외하던 공간과 자본주의 순리 안으로 선회했을 때의 이동 공간의 차이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안현상과 연희는 퇴근 후 매일 만났는데, 둘의 이동 경로는 ‘광화문-다방-내수동 길-사직공원-안국동 로터리-민충정공의 동상’이었다. 다방을 제외하고 그들은 주로 막혀 있는, 분리된 공간이 아닌 사방으로 열려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이별 후 현재의 공간이 아닌 ‘과거’의 공간, 그리움의 공간으로 변모한다. 이후 안현상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벤츠 300’의 충격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면서 ‘물신’의 공간들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그의 동선은 이제 백화점, 호텔 식당, 호텔 바(Bar), 맨션아파트, 호텔 등으로 이동된다. 그는 K 호텔의 15층 식당에 앉아 “쌀 매상 가격과 생산비의 차가 얼마 안 되어 농촌의 경제는 파탄 상태에 있다”는 신문시가를 보며 재벌 딸 진혜를 기다린다. 진혜에게 넥타이를 선물 받고, 샌드위치를 먹은 후 안현상은 “소꿉장난의 건물과 뜰처럼 보이는” 덕수궁으로 이동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추워서 덕수궁에 가기 싫다는 진혜의 대답에 그녀의 선물에 답례를 하기 위해 ‘백화점’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에게 덕수궁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 휴식처라면 ‘백화점’은 그저 상품을, 그것도 아무 의

미 없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공간이다. 결코 자신의 마음이 가 닿지 않는 사람과의 이별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잠시 머무는 길치레를 위한 공간일 뿐이다.

안현상이 그랬듯이 남상두에게도 ‘도시’에서 갈 만한 곳이라곤 열린 공간으로서의 ‘고궁’ 뿐이다. 그러나 고궁은 안현상에게는 과거의 공간이 되었고, 남상두가 있는 도시에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다. 이처럼 두 작품 속 주인공들이 닫힌 공간, 폐쇄적 공간을 배외한다는 것은 통제와 억압, 자유의 결핍, 제약 등 시대적 상황을 함의하는 은유적 표현에 다름 아니다. 자본과 독재가 들어선 자리에 더 이상 자유란 불가능하며 보이지 않는 통제와 불신만이 우글거릴 뿐이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구조 및 변화는 주인공들에게 ‘열린 공간’을 빼앗고, 그들을 저 구석진 닫혀 있는 공간으로 내몰아 간다. 남상두는 ‘의미 없는 상품과 먼지, 소음만이 가득한’ 도시의 거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방’을 찾지만 이내 다시 나온다. ‘다방’에서 흘러나오는 ‘뻔뻔스러운’ 유행가 가사에 구토증을 느꼈기 때문이다. 시각적인 것도, 청각적인 것도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감상할 만하다고 인식하는 그는 모든 것이 대중적인 상품으로 배치된 도시 공간에 환멸을 느끼고 방황한다. 그리고 기껏 찾아 들어간 곳이 대구의 ‘바(Bar)’이다. 그에게 그곳은 단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상품만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하룻밤의 유희를 위해 바(Bar)에 들어간 그의 눈에는 “아무리 보아도 한국 여자들 같지 않은, 그런데도 분명히 한국 여자일 수밖에 없는 여자들이” 물려있는 풍경이 들어온다. 그리곤 이내 자신 앞으로 다가오는 여자를 보며 “조명이 어두워 얼굴을 확실히 볼 수는 없으나 풍겨오는 공기로 미루어 상품(上品)은 도저히 아니라.”라고 추억거린다.

결국 고궁을 그리워하던 남상두도 어느새 ‘자본’의 질서 안에 편입되어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여성을 인식하며 마치 일상처럼, 문화인양 자본주의적 공간을 배외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발 0시 오십분’, ‘목포의 사랑’

을 배경 음악으로 댄스홀에서 사교댄스를 추고, 통금을 피하기 위해 워커힐 호텔의 빌라를 예약하여 한강과 천호동 일대를 풍경 삼아 밤새 술을 마시며, 이테리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것이 이제 그의 일상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도시 거리의 풍경을 담고 있는 공간 외에 도시 속의 ‘집’은 이들에게 어떤 공간일까? 『여로의 끝』, 『운명의 덧』의 주인공들은 일정한 ‘집’이 없이 여관이나 호텔을 전전공공하고 다닌다. 그러다 물질적인 ‘부’를 획득한 후 ‘집’을 소유하게 된다. 안현상의 경우 강양숙과 결탁하여 사채로 ‘부’를 획득하여 한강변의 맨션아파트를 구입해 기거한다. 이 지점에서 ‘맨션아파트’의 당대적 의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아파트가 주거 공간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여의도 시범 아파트 24개 동이 완공된 1971년부터이며 이 아파트가 성공하자 민간업자들은 아파트 건설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정부가 도심 개발 정책으로 주택 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업자나 자본가의 투기 행위도 함께 발생했다.³¹⁾ 이후 호화주택 건설 붐을 타고 중산층의 질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논리로 아파트에 맨션 개념을 도입한 맨션아파트가 건설되었으며 이는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결국 국가의 정책과 자본의 결탁으로 맨션아파트는 중산층과 인텔리들의 차별적 공간으로 부상하였고, 기존의 도시도 상업, 오락, 유행, 소비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의해 아파트를 거주지, 안식처가 아닌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모든 사물이 상품으로 교환되는 자본주의 도시공간 안에서 도시를 대표하는 아파트가 상품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도시 개발 정책은 단순한 부정 부패의 온상일 뿐 아니라 현대자본주의사회의 기본적인 모순들이 응집되어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도시 개발 정책은 도시와 농촌의 위계화뿐만 아니라 도시 내에서 경제력에 따라 신중산층과 하층민으

31)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2』, 한울, 2003, 77-97쪽 참조.

로의 계급 분화 및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였으며, 공간을 차등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도로건설을 통해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지역을 분리시키고, 고급주택지를 도로로 둘러쌓아 외부지역으로부터 보호하고, 판자촌을 강압적으로 허무는 정책에 도시계획은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 결과, “폭력이 합리성을 가장하고, 다시 통합적 합리성이 폭력을 합리화해주는 공간” 속에서 연대성은 파편화되었다.³²⁾ 같은 맥락에서 안현상의 ‘맨션아파트’는 거주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건 싱거워요. 그보다도 지금 안선생님이 사시는 곳이 어디죠?”

“한강변의 초라한 아파트랍니다.”

“공무원 아파트요?”

“아아니.”

“그럼?”

“속칭 맨션 아파트라는 텐데.”

“맨션 아파트? 딜럭스하구먼요.”

“미혜씨의 집에 비하면 삭막한 오두막이죠.” (『여로의 끝』, 215쪽.)

안현상은 자신의 집을 ‘초라한’, ‘삭막한 오두막’이라는 수식어로 표현한다. 이러한 안현상의 발화에는 “한강변 맨션아파트” 짝은 자신에게 초라하게 인식될 만큼 많은 ‘부’를 축적했음을 과시하는 방어적 의미와 이미 자본주의적 질서에 영합하여 그 중심에서 살고 있는 안현상의 변화가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파트(혹은 문화주택) 거주가 갖는 함의 그대로 “도시로의 통합과 사회적 지위의 상승”³³⁾을 의미한다.

문제는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집’을 소유할 만큼의 ‘부’를 획득하는데 동원된 수단이다. 세 작품들은 한결같이 갈등의 시작도, 과정도, 갈등해

32) H. Lefebvre, 앞의 책, p.325(노대명, 앞의 책 54쪽에서 재인용.)

33) Valerie Gelezeau, 『한국의 아파트 연구』, 길혜연 역, 아연출판사, 2004, 205쪽.

결의 실마리도 ‘자본’과 관련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상황을 가능하게 한 것이 당대에 생성되었거나 성행하였던 직업들이라는 점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직업을 보면 재벌 간부, 부동산 투기, 사채업자, 고리대금업자 등이다.³⁴⁾

주지하다시피 이들의 직업은 모두 물질과 연계되어 있고, 이것은 시대·정치적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1970년대의 “경제정책은 재벌 육성 정책”이라고 할 만큼 재벌들에게 이로운 조치들이 유난히 많았다. 1972년의 8.3 긴급경제 조치, 1973년의 중화학공업화 정책, 1974년의 5.28 특별조치, 그리고 1975년의 종합무역상사 제도. 이 모든 제도들은 결과적으로 재벌을 육성하는 결과를 낳았다.³⁵⁾ 또한 공업화로 발생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된 아파트 건설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야기했다. 즉 도시화, 공업화에 따라 토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34) 『여로의 끝』의 경우는 재벌 기업의 사장에게 연인을 빼앗긴 안현상이 평범한 샐러리맨에서 부동산 투기와 고리대금업으로 직업을 전환한다. 『운명의 덧』의 경우 남상두는 평범한 교사에서 공장 또는 회사의 사장이 되고, 남상두에게 누명을 씌운 동료 교사 및 형사도 공장, 회사의 간부로 직업을 전환한다. 『서울은 천국』의 등장인물들 역시 사채업을 직업으로 갖고 있다. 또한, 각 작품에서 남자 주인공을 돕는 여성들도 대부분 일수를 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해서 ‘부’를 획득한 인물들이다.

35) “박정희 정권은 먼저 광범위한 내자 동원 체제를 구축하여 국민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중 70%를 정책금융의 형태로 중화학 부문에 집중 지원하였으며, 다양한 조세 감면, 관세보호, 수입규제 조치 등을 통해 중화학 제품에 대한 이윤을 보장하였다. 또한 대자본가들에게 종합상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중소 하청기업들을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계열화시켰다. 이러한 국가의 지원과 유인책은 대자본가들의 중화학공업 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을 국가가 대신 감당해 주는 효과를 가져다줌에 따라 대자본가들은 경쟁적으로 중화학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중화학 공업 정책은 대자본가 계급을 육성하는 결과를 가져왔고(임혁백, 『시장·국가·민주주의: 한국 민주화와 정치경제이론』, 나남, 1994, 321쪽), 이로 인해 재벌들의 ‘문어발’ 수만 더욱 늘어났다. 1978년 말을 기준으로 11개 종합상사 그룹들이 거느린 기업군은 모두 312개 업체에 달했다(역사학연구소, 『강좌 한국근현대사』, 풀빛, 1995, 339-340쪽.) 는 사실이 이를 증빙한다.

을 갖고 있으면 땅값 급등으로 자산 증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³⁶⁾ 자본주의 논리가 ‘대지를 장악하고, 부동산을 동산화’³⁷⁾ 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안현상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힘입어 ‘부’와 ‘지위’를 얻고, 나아가 자신의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남상두 역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물려 재벌 기업을 무너뜨릴 만한 가족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살인자라는 누명 또한 벗을 수 있었다. 이제 ‘집’은 “인간 존재의 최초의 세계, 하나의 우주”³⁸⁾가 아닌 교환가치를 띤 ‘상품’으로 변모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물의 상품화, 물신화로 인해 부동산 투기, 고리대금, 일수 등이 하나의 사행 직업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당대에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자신의 인생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교사, 형사, 샐러리맨이 아닌 단기간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직업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행 직업들 역시 개발 경제 정책의 기획과 이행 단계에서 파생된 것들이며 자본주의의 표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당대의 자본 논리와 물신화는 ‘거주지’를 상품으로 변주하는데 이어 급기야는 인간까지 ‘상품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직업에 귀천이 있어예? 이것도 직업이라예,」

하는 쓰는 듯한 말이 돌아왔다.

나는 누구에게 보일 것도 아닌 쓰디쓴 웃음을 짓고 외등이 아슴푸레 무늬를 엮고 있는 천정을 쳐다봤다.

(아무렴. 창부는 직업이지. 이 지구에 사회라는 것이 생겨날 때부터 생긴,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직업임에는 틀림이 없지.)

동시에 나는 창부의 의식구조는 남자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해보았다.

36) 장상환, 「해방 후 한국자본주의 발전과 부동산 투기」, 『역사비평』66, 역사문제연구원, 2004, 58쪽.

37) Henri Lefebvre, 앞의 책, 481쪽.

38) Gaston Bachelard, 『공간의 시학』, 광광수 역, 동문선, 2003, 77쪽.

흔히들 창부는 스스로를 슬프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무슨 방도만 있으면 벗어나야 할 수렁이라고 믿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러니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당장 실천할 수는 없으되 달걀 받아들이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 무수한 낮과 밤을 불운에 우는 여자로서 지낼 것이라고 짐작도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다. 직업에 귀천이 있느냐는 사고방식은 위선적인 사회에 대한 반발이 내재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도둑질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은가. 억울하게 착취를 당하며 노예 노동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은가. 우리의 죄는 부자 부모를 못 만났다는 그 죄밖에 없다. 우리가 가진 것을 정직하게 팔아먹고 산다. 요구가 있으니 팔기도 한다. 파는 내가 나쁜 년이라면 사는 사내놈은 더 나쁜 놈이 아닌가. 음탕에 미쳐 서방질하는 년도 수두룩한데 거기에 비해 우리는 뭐 나쁘단 말이나. 사흘 굶으면 세 길 담을 뛰어넘는다는데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나. 참고 견디며 살아본들 우릴 요조숙녀로 대해줄 텐가? 빈민굴에 자식새끼 주렁주렁 달고 아귀처럼 살아가는 게 고작이 아닌가.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편생이다.....

창부들에겐 이런 배짱이 있는 것이다. 이런 철학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배짱과 철학엔 이미 역사의 승인이 있는 것이다. (『운명의 덧』상, 218-219쪽.)

이병주 소설에는 시골 작부부터 바걸, 마담, 양공주, 창부, 기생 등 각양각색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등장한다. 특히 『운명의 덧』의 경우에는 S읍에서 만난 작부와 기생, 대구에서 만난 바걸과 창부, 동두천에서 만난 양공주 등 유흥업소 여성들이 대거 등장한다. 작품은 위인 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의 성적 욕망이 아닌 성이 상품화되어 직업으로 성행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주목한다. “한 달에 다섯 번만 나와도 옆직공장 직공보다” 돈벌이도 낫고,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도 생각하는 그녀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는 그저 직업일 뿐이다. 그녀들에겐 흔히 상상하는 슬픔이나 상처, 사연 대신 오로지 살아내야만 하는 현실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성의 시장논리에 기반하여 작동되고 있는 ‘남근적

도시'와도 무관하지 않다. 성 시장에 통용되는 논리는 여성의 인격 자체를 부정하고 성적 대상화로 보는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성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산물이다.³⁹⁾ 이제 '성'은 자본시장의 교환가치로 전이되었으며, 여기에는 무역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한 외화벌이라는 명목 아래 개방하였던 산업화 정책의 명함이 자리하고 있다.⁴⁰⁾ 1973년 외화벌이를 위해 매매춘의 국책 사업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1973년부터 관광 기생들에게 허가증을 주어 호텔 출입을 자유롭게 했고, 통행금지에 관계없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박 정권은 여행사들을 통해 '기생 관광'을 해외 선전했을 뿐만 아니라 문교부 장관은 1973년 6월 매매춘을 여성들의 애국적 행위로 장려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⁴¹⁾ 이러한 사회적 정책과 정권의 편의적 이용으로 인해 여성의 몸은 '노동이 행해지는 물질적 장소이자 성별 정치학과 섹슈얼리티의 실천이 깃들여 있는 문화적 공간'⁴²⁾으로 변모된 것이다. 이처럼 작품 속 도시 공간은 "본질이 망각된 채 점차 대상화·부품화·상품화 되어"⁴³⁾ 재화 및 사람의 상호작용과 교환이 성립되는 장소이며, 자본주의적 착취와 지배의 양상이 교차하는 사회적 중심지로 존재한다.⁴⁴⁾

살펴본 바와 같이 이병주는 도시와 농촌, 그리고 두 공간을 잇는 고속버스, 고속도로, 기차, 자동차 등의 공간에 작동하는 자본주의 질서와 논리를 그대로 노출시킨다. 작품 속 주체들이 자본주의적 공간 질서에 순

39) 이영자, 「성의 시장, 매매춘」, 오생근·윤혜준 공편, 『성과 사회』, 나남출판사, 1998, 257-258쪽.

40) 박종성, 『한국의 매춘』, 인간사랑, 1994, 115쪽.

41) 이효재, 『한국의 여성운동: 어제와 오늘』, 정우사, 1989, 182, 251쪽.

42) 김영옥, 「70년대 근대화의 전개와 여성의 몸」, 『여성학논집』18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1, 27-28쪽.

43) 강학순, 『존재와 공간』, 한길사, 2011, 199쪽.

44) 장세룡, 「앙리 르페브르와 공간의 생산」, 『역사와 경계』58, 부산경남사학회, 2006, 301쪽.

응하는 모습을 표방하면서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형성된 당대의 획일적인 질서, 즉 모든 대상과 관계가 교환가치로 인식되고 거래되는 세태를 그려내고 있다.

5. 나가며

이 글은 이병주의 1970년대 대중 소설(『여로의 끝』, 『운명의 닻』, 『서울은 천국』)을 대상으로 소설 내의 ‘공간’에 주목해 당대의 삶의 양식과 생활 모습.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추적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 대상 텍스트로 삼은 세 작품들은 그간 이병주의 작품들 중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한 텍스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작품을 대상 텍스트로 삼은 이유는 이 작품들은 1970년대를 다루고 있는 여타의 소설들과는 다른 소설적 인물들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본’의 중심에 있는 중산층 이상의 중년에 주목하여 자본과 정치·사회적 영역이 중층적으로 얽혀 있는 시대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1970년대 소설 연구의 중심에 있는 청년, 소시민, 소외 등의 문제가 아닌 이러한 문제들을 유발하거나 자본의 질서 안으로 진입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인물들을 통해 당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작품들 내의 ‘공간’에 주목한 것은 작품 속의 공간들은 모두 사회적 공간으로, 다양하고 중층적이며 상호침투적인 속성을 갖기 때문에 이 공간들의 의미를 통해 자본, 계급, 국가가 중층적으로 얽혀 있는 당대의 경제·사회·정치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농촌이라는 공간에 주목하여 새마을 운동을 통해 시작된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농촌의 풍경, 주거환경과 전통적인 농촌 모습과의 단절을 야기하고, 공간을 분리시켜 연대를 불가능하게 했음을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농촌에 유입된 물신화와 그 폐해, 나아가 인간성 상실과 빈부격차 등 자본, 계급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농촌’과 ‘도시’ 공간을 잇는 기차, 고속버스, 고속도로, 자동차 등도 정치·사회·경제의 중층적인 영향관계에 의해 생산된 공간으로 단순한 이동수단의 의미를 넘어서 부, 지위, 차이화 등을 비롯하여 시대적 상황과 문제를 담지하고 있었다. ‘기차’는 새로운 사회적 생산물로 인해 시대를 표상하는 사물의 의미를 잃고 삶의 배경으로 전경화되었다. ‘기차’를 대체한 자리에 들어선 고속버스와 고속도로 건설은 영농의 영세화와 노동력 부족, 이촌 현상을 초래하고 부락을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건설업자나 노무자들의 영향으로 소비지향적인 태도와 영리주의 및 이해타산적인 사고방식이 농촌에 이식되는 현상도 야기했다. 이러한 시대적 현상은 화폐의 힘과 국가의 권력을 포함하는 자본주의 공간의 특성을 극명히 보여주며 동시대의 문화에도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인 경우가 ‘자동차’의 생활화를 들 수 있다. 소설 내에서 ‘자동차’는 자본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 안에서의 생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동차’는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상징 기호임과 동시에 타자와의 차이화를 담지하고 있다. 화폐가치와 교환가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당대 사회에서 ‘자본’만 있으면 원하는 것은 모두 소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간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욕망은 타자와 똑같은 상품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구별짓기로서의 소비를 추구하게 한 것이다. 결국 자동차로 상징되는 과시형 소비는 국민을 중심으로 하여 동질화를 추구했던 당대의 국가 정책의 표상을 전복시키고, 그 안에 은폐되어 있던 차별화 원리를 끌어내고 있었다.

다음으로 도시공간은 닫힌 공간으로 주거 공간에서 인간 까지 상품화되고 있는 당대의 생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자본과 독재가 들어선

도시 공간은 통제와 억압, 자유의 결핍과 아울러 ‘자본’이 있어야만 출입할 수 있는 닫힌 공간이 되어 소설 속 주인공들을 방황하게 한다. 그리고 곧 이내 그들을 자본주의 논리에 잠식시켜 주거 공간과 인간까지 상품으로 변모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당대의 생활 모습을 드러낸다. 이를테면 아파트 상징을 통해 도시개발정책이 은폐하고 있었던 공간의 차등화와 빈부의 불평등을 드러내고, 거주지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여기는 인식 논리를 비롯해 부동산 업자나 자본가의 투기가 성행하는 당대의 삶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아울러 자본주의 논리가 대지를 장악하고 부동산을 동산화 하는 과정 속에서 성행했던 직업들(사채업, 일수, 종합상사, 유흥업 등)을 통해 당대의 사회·구조적 모순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포착해 내고 있다. 특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유흥업소 여성들은 인간과 여성성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는 당대의 인식논리를 투사하여 자본주의적 착취와 지배의 양상이 교차하는 도시 공간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결국, 농촌, 도시, 농촌과 도시 공간을 잇는 다양한 이동수단은 자본주의 사회의 병리적 징후들을 드러내는 매개로, 당대의 삶의 모습과 생활 양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심급에는 본질이 망각된 채 모든 대상을 상호 교환 가치로 여기는 시대 인식, 즉 자본주의 논리가 내재되어 있음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이병주, 『서울은 천국』, 태창문화사, 1980.
_____, 『여로의 끝』, 창작예술사, 1984.
_____, 『운명의 덧』상,하, 문예출판사, 1992.

2. 논문 및 단행본

-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 1970년대 편①』, 인물과 사상사, 2002, 70쪽.
강학순, 『존재와 공간』, 한길사, 2011, 199쪽.
강현두, 「현대 한국 사회와 대중문화」, 『한국의 대중문화』, 나남, 1987, 26-27쪽.
권명아, 「풍속 통제와 일상에 대한 국가 관리」, 『민족문화사연구』33, 민족문화사학회, 2007, 367-406쪽.
김남천, 「일상의 진리와 모랄」(5), 『조선일보』, 1938. 4.22.
김동식, 「풍속 · 문화 · 문학사」, 『민족문화사연구』19호, 민족문화사연구소, 2001, 71-105쪽.
김영옥, 「70년대 근대화의 전개와 여성의 몸」, 『여성학논집』18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1, 27-48쪽.
김지영, 「풍속 · 문화론적 (문학)연구와 개념사의 접속, 일상개념 연구를 위한 試論」, 『大東文化研究』70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483-528쪽.
노대명,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생산이론’에 대한 고찰」, 『공간과 사회』 14호, 한국공간환경학회, 2000, 36-62쪽
박종성, 『한국의 매춘』, 인간사랑, 1994, 115쪽.
박진도, 「현대사 다시 쓴다. 이농과 도시화: 급격한 산업화...남부여대(男

- 負女戴) 무작정 서울로, 『한국일보』, 1999. 8. 3.
- 박진환, 「새마을운동: 한국 근대화의 원동력」, 김성진 편역, 『박정희 시대: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조선일보사, 1994.
- 손정목, 「현대사 다시 쓴다. 경부고속도 개통: 64년 독 아우토반 주행 후 대통령 ‘대역사’ 결심」, 『한국일보』, 1999. 8.17.
- _____,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2』, 한울, 2003, 77-97쪽.
- 역사학연구소, 『강좌 한국근현대사』, 풀빛, 1995, 339-340쪽.
- 오창은, 「한국 도시소설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5.
- 우한용, 「풍속과 소설연구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현대소설과 풍속』(한국현대소설학회 발제문), 2005, 29쪽.
- 윤영옥, 「이기영 농민소설에 나타난 풍속의 재현과 문화재생산」, 『국어국문학』157, 국어국문학회, 2011, 245-276쪽.
- 이영자, 「성의 시장, 매매춘」, 오생근·윤혜준 공편, 『성과 사회』, 나남출판사, 1998, 257-258쪽.
- 이효재, 『한국의 여성운동: 어제와 오늘』, 정우사, 1989, 182, 251쪽.
- 임혁백, 『시장·국가·민주주의: 한국 민주화와 정치계제이론』, 나남, 1994, 321쪽.
- 장상환, 「해방 후 한국자본주의 발전과 부동산 투기」, 『역사비평』66, 역사문제연구소, 2004, 55-78쪽.
- 장세룡, 「앙리 르페브르와 공간의 생산」, 『역사와 경계』58, 부산경남사학회, 2006, 293-325쪽.
- 차혜영, 「지식의 최전선」, 『민족문화사연구』33, 민족문화사학회, 2007, 83-107쪽.
- 홍승직, 「고속도로와 사회변동」, 임희섭·박길성 공편, 『오늘의 한국사회』, 나남, 1993, 498, 503-504쪽.
- Gaston Bachelard, 『공간의 시학』, 광광수 역, 동문선, 2003, 77쪽.

Henri Lefebvre,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역, 主流·一念, 1990, 66쪽.

_____,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76, 108, 481쪽.

Jean Baudrillard, 『소비의 사회』, 이상을 역, 문예출판사, 1991, 59, 314-315쪽.

Umberto Eco, 『대중문화연구2: 대중의 영웅』, 조형준 역, 새물결, 2005, 58-59쪽.

Valerie Gelezeau, 『한국의 아파트 연구』, 길혜연 역, 아연출판사, 205쪽.

<Abstract>

Customs Age in the novel Lee Byeong-ju

Son, Hye-suk

This study is an announcement that work on contemporary popular novels of the 1970s of Lee Byeong-ju the background to the target text, examined the meaning of things linking the 'space' and the space in the novel. And I looked to trace out the form and appearance of life as a living contemporary customs. Works inside space appears as a moving means such as rural and urban, rail, highway, sued the bus, car. The spaces are in all social space, and has a variety of alluvial interpenetration of property.

First, the rural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initiated through the Saemaul Movement separated by a space that looked solidarity impossible. It was conducted by the country's needs, from fetishism that introduced this process in rural and evils, that humanity was able to capture such capital loss and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and class issues are occurring.

Similarly, rural 'and' urban 'space connecting the train, express bus, highway, car, etc. to the production area by the middle of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mpacts related parts, status, could contain differences with contemporary situations and issues. 'Train' is losing the meaning of things that represent the new era because of the social product was foregrounding in the background. High-speed bus and highway construction is causing the anger and yichon

phenomenon of rural poverty, by separating the villages artificially weakened the sense of community. 'Cars' was the symbol of symbols containing the difference between being angry and typing at the same time revealing social status.

Next to the human tendency to transform into goods through urban space in a residential space, and accept it for granted it could capture a contemporary lifestyle. Such as apartments were projected figure of urban development policy reveals the inequality of wealth and differentiation of the space had been concealed, the residence a means of wealth here, as well as the recognition that prevailing logic of contemporary capitalist speculation of Realtors and life .

After all, the various means of transportation that connects rural, urban, and rural and urban space as a medium that reveals the pathological manifestation of capitalist society, it was revealed changes in the appearance and lifestyle of contemporary life. And here instance, the time aware of all the target without forgetting the essence in the exchange value, that is, was able to come up with that logic it is inherent in capitalism.

Key Words : Lee Byeong-ju, End of the journey, trap of destiny,
Seoul heaven, Customs, Space, capitalism, exchange
value.

■ 논문접수 : 2015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5년 8월 18일
■ 게재확정 : 2015년 8월 20일